

하반기 난가 다소 회복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큰 기대 어려워

유 용 완

(축협중앙회 조사부 축산관측팀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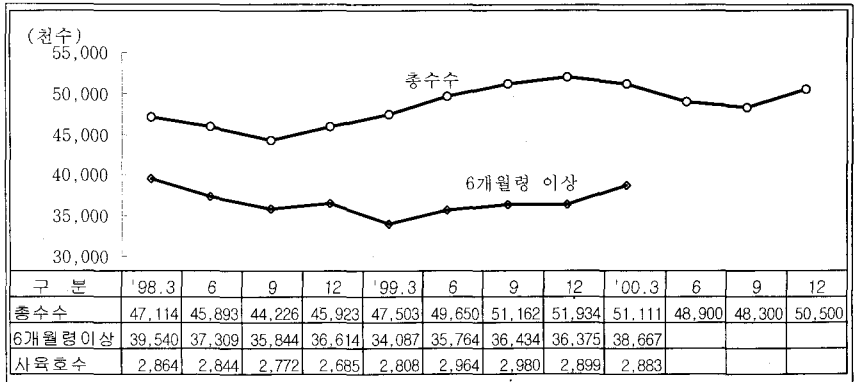
6월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연일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무엇보다도 더운 날씨에 취약한 닭들이 올 여름을 잘 지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특히나 계란 소비가 연중 최저 수준을 보이는 여름철을 맞이하고 있지만 계란값 폭락의 주원인인 사육수수 과잉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고, 뉴캐슬병 피해도 계란 품질 저하 등 상당한 후유증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등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상황들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난가 불황이 장기화

되면서 경영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고 자율적인 생산 감축도 일부 전개되면서 멈출 줄 모르고 증가세를 보이던 산란계 사육



수수가 지난 3월 한풀 기세가 꺾인 뒤 당분간 감소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올 하반기에는 모처럼 난가 곡선이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도표1〉. 사육전망



1. 사육동향 분석

비교적 안정적인 사육형태를 유지해 오던 산란계 수수는 지난 1997년말 IMF 시대를 맞으면서 1998년 9월에는 4,400만수대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9년 들어서 회복세를 보인 이후 9월부터는 5,000만수대를 넘어서서 과잉 사육 추세를 보이고 있다. 3개월마다 조사·발표되고 있는 가축통계 최근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 3월 현재 산란계 총수수는 5,111만 1천수로 3개월 전보다 1.6%(823천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년 전보다는 7.6%(3,608천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생산이 가능한 6개월령 이상 산란용 수수는 3,866만 7천수로 3개월 전보다 6.3%

(2,292천수), 1년 전보다 13.4%(4,580천수)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계란 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산란계 사육호수는 2,883호로 3개월 전보다는 0.6%(16호)가 감소하였으나, 1년 전보다는 2.7%(75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호당 사육규모를 살펴보면 2000년 3월 현재 1가구당 17,728수로 1999년 3월의 16,917수, 1998년 3월의 16,450수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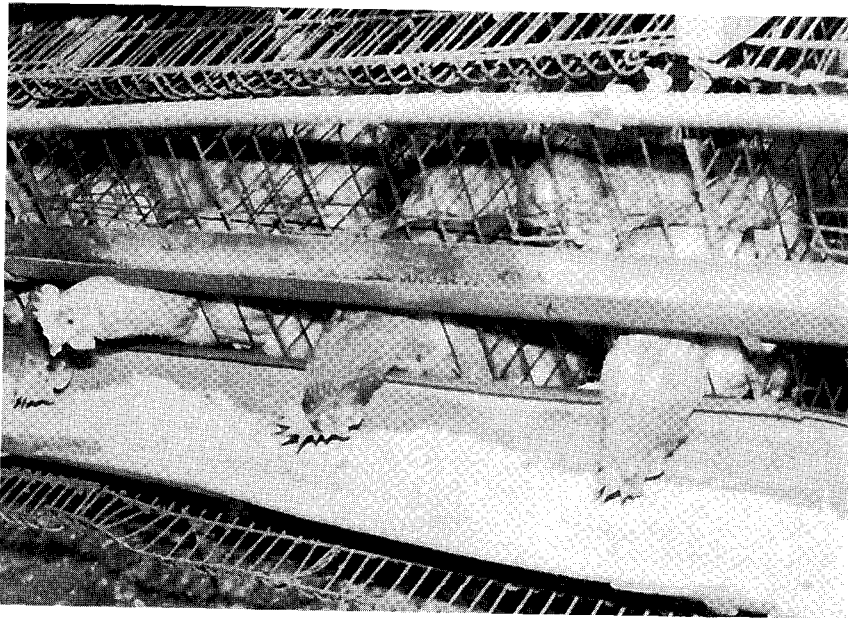
타나 규모 확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축 사육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배합사료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올 1~4월까지 산란용 배합사료가 총 739천톤이 생산되어 1999년 같은 기간보다 4.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1999년과 비교해보면 산란용 사료는 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병아리용 사료는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생산량 : (1998.1~4월)663천톤 → (1999.1~4월)705천톤→(2000.1~4월)739천톤
- 병아리용 : (1998.1~4월) 98천톤 → (1999.1~4월)112천톤→(2000.1~4월)104천톤
- 산란용 : (1998.1~4월)565천톤 → (1999.1~4월)593천톤→(2000.1~4월)635천톤

2. 사육전망

앞으로 산란계 마리수는 9월까지 감소세를 보인 후 12월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예상되는 것은 예년과 달리 봄철이 시



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연적인 사육수수 증가 요인보다는 인위적인 사육 감축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면서 당분간 산란계 마리수는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12월경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종계병아리생산실적 : (1999년 상반기)2,590천수 → (1999년 하반기)3,765천수로 45.4%

작된 이후에도 뉴캐슬병 등 양계 질병이 다발로 발생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난가 하락으로 인해 양축가 사육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사육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난가 안정을 위해 2차에 걸쳐 투입된 노계도태자금 지원으로 어느 정도 사육수수 감축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종계병아리 생산실적, 병아리용 배합사료생산실적을 살펴볼 때 계란생산잠재력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인 사육 감축이 지속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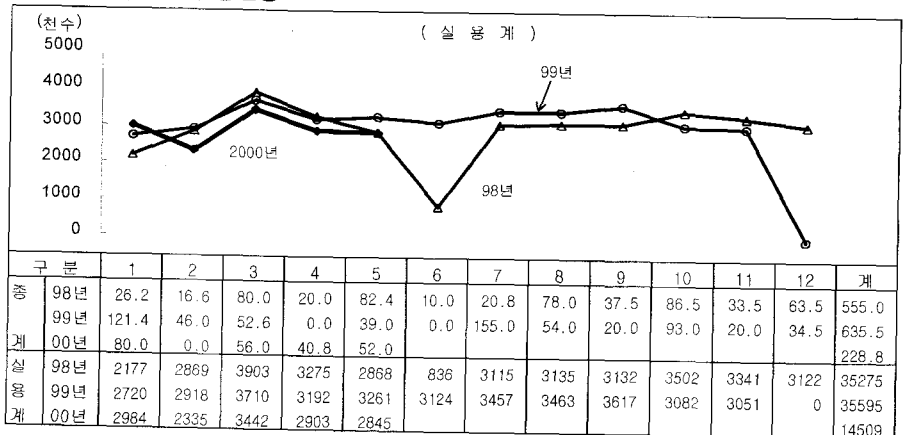
증가

- 병아리용 배합사료생산실적 : (1998년)305천톤 → (1999년)379천톤으로 24.3% 증가

3. 계란생산량 분석

산란용 종계병아리 생산동향을 살펴보면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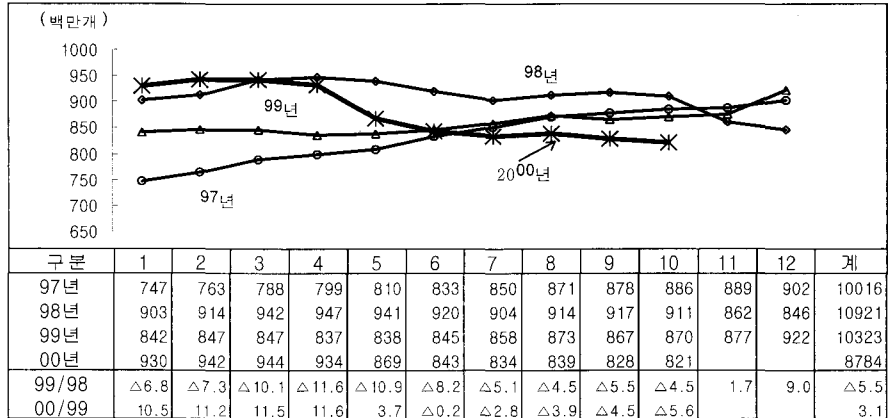
〈도표2〉. 병아리 생산량



(자료 : 대한양계협회)

1~5월까지 17만 6천 8백마리가 생산되어 1999년 같은 기간보다 19.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하반기 계란 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1999년 하반기 중계 생산량을 살펴보면 1998년 하반기보다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9년 상반기에 비해서도 45.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계란 생산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올 1~5월까지 실용계 병아리를 살펴보면 총 1,450만 9천수가 생산되어 1999년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 1998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3.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표3〉. 계란생산잠재력



(자료 : 축협중앙회)

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중계생산량을 통한 계란생산잠재력보다는 실제 생산되는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4. 계란가격 동향 및 전망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약세를 보이던 계란값은 올 들어서도 약세가 계속되었으며 연초 설날 성수기 영향으로 단기간 강세가 이어지던 예년의 추세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등 계란 생산 과잉으로 인한 난가 불황이 계속되었다. 한편 계란 소비 촉진을 위한 근남물량 확대, 소비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발생된 구제역으로 인해 전반적인 축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되면서 계란 소비 촉진 활동 효과가 반감된 것으로 보인다. 봄철 이후에는 뉴캐슬 질병으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계란 소비 부진의 주요인이 되었다.

앞으로 계란값은 여름철 비수기로 접어들면

- 중계병아리 : (1998.1~5월)225.2천수 → (1999.1~5월)259.0천수 → (2000.1~5월)228.8천수

- 실용계병아리 : (1998.1~5월)15,092천수 → (1999.1~5월)15,801천수 → (2000.1~5월)14,509천수

올 해 계란생산잠재력 변동을 살펴보면 4월까지의 다소 높게 유지되다가 5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난가 안정을 위해 대한양계협회 회원을 중심으로 산란계 분양을 중단한 결과로 보인

서 전반적인 약세국면이 이어지다가 8월 이후에야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공급측면을 살펴보면, 지난 3월 가축통계조사결과 6개월령이상 수수가 3개월 전보다 6.3%, 1년 전보다 13.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계란 가격 불황이 장기화 될 수 있음을 예고해주고 있다.

그러나 난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계도태 자금 지원 및 생산자들의 자율적인 생산 감축 등으로 어느 정도 사육감축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난가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육규모를 축소하거나 사육을 포기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어 전반적으로 사육마리수가 감소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6개월령이상 수수 : (1999.3월)34,087천수
→ (1999.12월)36,375천수 → (2000.3월)38,667천수

수요측면을 살펴보면 계란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군급식 물량 증가, 급식업체의 협조 등이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급식업체의 경우 계란을 까는 불편함 등으로 협조가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여름철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방학과 휴가철로 인해 연중 계란 소비가 최저 수준을 보이겠으나, 8월 이후 선선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부터는 계란 소비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는 계란의 소비 특성상 앞으로는 계란 소비 증가 추세가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계란값을 전망해 보면 난가 안정을 위한 인위적인 사육 감축이 이뤄짐에 따라 당분간 산란계 수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요

측면에서 별 다른 증가 요인이 없어 계란값은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여름철에 들어서면 학생들의 방학과 휴가철로 인해 계란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계란값은 연중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8월 이후 선선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개학과 추석명절(9.11~13일) 계란 수요에 대한 가수요 영향으로 계란값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볼때 추석을 지나면서 다시 약세로 돌아선 후 12월경 제빵제과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 맺음 말

멀리 돌아볼 것도 없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들 식탁에서 환영을 받던 식품을 손꼽으려면 계란이 아닐까 싶다. 그것은 높은 영양 가치를 떠나 맛과 가격, 조리방법의 간편성에 있어서 가정주부들의 환영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입맛이 고급화되면서 우리들의 식탁에서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대형유통매장의 저가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계란이 처한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산란계 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 계란의 생산 및 시기별 계란수요에 맞춰 적정량의 계란 생산 및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선진유통체계가 시급히 갖춰줘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양축가, 정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양계**